# 바보들의 문제의식의 문제점

## (사무엘상 25:1~44)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바보들의 문제의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바보들의 문제의식의 문제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도 못 들어가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2~3년간을 서울 시내의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

처럼 제가 살던 곳도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코딱지만 한 집에 세 가구가 살았습니다. 형들은 신학교 기숙사나 군대에 가 있을 때였으므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랑 네 식구가 사는데 할머니가 중풍으로 누워계셔서 다 받아내며 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달동네에 살면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의 소식들을 들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새댁이 살았는데 이제 겨우 설 수 있게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든 사이에 저녁을 지으려고 잠깐 시장에 갔는데 아기가 깨어서 부엌의 연탄아궁이 위의 뚜껑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화상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알려주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동네의 아픔이었습니다. 조금만 나이를 먹었어도 발을 대서 뜨거우면 반사적으로 뛰어내렸을 것인데, 이 아기가 아궁이 위에 그냥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10살 이상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서 뜨겁다고 우는데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넘어 60~70살이 되어도 그 짓을 한다면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말에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경멸하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병이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바보'라는 말은 '밥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밥은 열심히 먹는데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변해서 오늘날에 어리석거나 멍청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밥은 귀한 것이었는데 그 귀한 것을 축내면서도 유익한 삶을 살지 않고, 무익한 일에 마음을 쏟고 손해가 불을 보듯 분명한데 마음을 쏟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밥을 먹고 왜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거의 모든 인간은 바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바보 병을 인간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익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있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손해가 불을 보듯 분명한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문제의식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사는데 돈이 많을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고, 굴리고, 보존할까 생각하는데 재벌도 이 경제문제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것의 내용은 내 재정의 상황이 내 마음에 만족할 정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내 건강의 상태가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자식 문제를 느낀다면 자식의 상태가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재정 상태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마음으로 돈을 붙

들기 때문에 돈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돈을 다 모으더라도 무익합니다. 건강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온전히 건강해도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서 온갖 다른 짓을 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식이 문제더라도 자식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부부문제에서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안 계셔서 민족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배우자를 바라본다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돈, 건강, 배우자, 자녀, 사업,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마음을 만족시키는 점에서는 다 무익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만 느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마음을 경제에 붙이고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가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마음을 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 상황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마음을 경제에 붙이고 괴로워하는 것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빨리 난로를 끄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떼면 되는데 난로를 끄라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서 마음을 떼어야 자식 문제가 끝이 나는데, 자식이라는 난로에 마음을 붙이고 난로를 끄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바로 바보 병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밥을 먹고 기껏 하는 일이라곤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문제의식을 느끼며 '아!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바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바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다윗이여 왜 바보 병이 도져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의 이름 뜻은 '바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불량한 나발에게 개의치 말라'고 하는데 '불량한 자'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쉬 벨리알'이라는 말로서 이것 역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쓸모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써서 당신도 바보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적하기를 이제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는데,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에 거절당했음으로 인해서 나발을 죽인다면, 당신이 왕이 된 뒤에 계속해서 오명(汚名)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명은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선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절대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은 선민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다윗이 숨은 곳 근처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세력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

들을 보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600명의 먹을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허락 하는 대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이 배은망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하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급하게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중간에 다윗을 만나 무릎을 꿇고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나발 같은 무익한 존재로 인해서 분개하고 죽이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개의치 말라'는 것은 '분개하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써야할 마음을 나발 같은 자에게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나발의 목숨은 하나님이 거둬가시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바보같이 허송세월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숫대야 냉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숫대야처럼 크지는 않아도 세숫대야에 비유될 정도로 큰 그릇에 냉면을 줍니다. 그런데 냉면 1인분을 세숫대야 정도가 아니라 큰 대야에 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은 큰 대야 같아서 경제문제를 담으려고 해도 냉면 1인분을 담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채워질 수가 없는데도 그 냉면 1인분 같은 경제문제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큰 대야 같은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건강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냉면곱빼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큰 대야가 채워지지 않는다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큰 대야가 채워지지 않기는 냉면이 1인분이든 곱빼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처럼 바보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문제, 건강문제, 직장문제, 자식문제 등에 우리 마음을 붙인다고 해서 마음이 만족될 수가 없고 마음의 만족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식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뜨거워 죽겠으니 빨리 난로를 끄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발의 이름 뜻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에 신경을 쓰다가 다윗도 바보가 될 지경이 되었는데 아비가일이 말립니다. 이 바보 됨이 타락 이후에 아담 때문에 우리 속에 생긴 유전 죄에 포함된 병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마음이 끌려갑니다. 돈 문제 있으면 돈에 끌려가고 돈이 아무리 벌린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 다음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번 돈을 쓸 수도 없게 됩니다. 건강 다 나았더니 이번에는 자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붙이지 말아야 하고 난로에서는 손을 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서 마음에 문제의식이 생길 때에 돈을 붙잡고

돈 문제인줄로 알고, 자식을 붙잡고 자식이 문제인줄로 알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이 없어서 문제인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최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에는 직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살아남는 자를 부러워하고, 살아남은 자는 유지하는 자를 부러워하며 끝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식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 바보 병을 고치는 유일한 약입니다. 끌려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돈 문제나 자식 문제를 문제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꼭 붙들고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생활화하다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갖게 되며 만족하게 되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돈 문제, 자식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후에는 망해도 흥해도 죽어도 살아도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에는 문제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타인의 삶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게 됩니다. 돈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온전히 바보 병이 극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에 손을 대고는 난로를 끄라고 소리치고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다보면 내 삶이 망해버릴 것 같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보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온전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창출하는 창조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